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백승의 만년초석으로 고여진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전화의 영웅세대가 혁명유산으로 물려준 투쟁정신과 승리전통을 혈맥으로 이어가며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계승완성할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패멸을 선고한 영웅조선의 존엄높은 모습이 불멸의 승리상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전승절을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게 되는 전체 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기념행사의 레식이 진행되였다.

전투적기백으로 총만된 혁명군가에 맞추어 펼쳐지는 국방성중앙군악단의 각이한 대형변화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의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가 전승절의 영광을 더해주었다.

이어 항공록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있었다.

고도 1, 200m 상공에서 락하한 항공록전병이 조종락하산을 펼치고 위대한 전승의 년대를 안아온 조국수호자들에게 드리는 한송이의 눈부신 꽃으로 밤하늘



을 누비였다. 승리의 7.27을 위하여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가정과 사랑, 꿈과 희망, 청춘과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다 바치면서 피로써 지키고 물려준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을 7월의 하늘가에 거목으로 장엄하게 휘날리는 락하산병에게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진의 돌격로를 제일먼저 열어놓은 빛나는 군공과 더불어 근위부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이 기교비행에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금강하하는 조

지공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솟구치는 수직급상승기교, 금라선상승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전승절의 야공에 경축의 불보라, 경의의 축포탄들을 터치는 비행대들을 향해 참가자들은 경탄의 환성을 연방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 불세출의 령장을 높이 모신 력사의 행운속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동서고금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위훈으로 빛내이며 세계적인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우리의 자랑스런 국호와 국기를 세계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려놓았음을 경쾌한 선물과 박력있는

물동, 세련된 강하 및 비행기교로 펼친 레식은 기념행사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전승로병들과 함께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대미문의 격난속에 서로 세기의 정상에 주체조선을 강용히 떠돌리시고 민족만대에 불멸할 위대한 승리를 수놓아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 소년단

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승로병들과 전체 인민에게 따듯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받쳐들고 《우리의 국기》의 노래선률에 발맞추어 엄숙히 입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는 속에 전승절의 밤하늘가에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서서히 계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전승절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재부를 마련한 위대한 혁명세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존경,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강렬히 맥동치고 선렬들의 고귀한 생명과 바꾼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를 세계만방에 영원토록 빛내여갈 엄숙한 선언으로 심장의 피를 풀게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전체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승세대와 그 후손들이 터치는 우렁찬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열광넘친 환호가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발사가 시작되였다.

(3면으로 계속)

